

우리나라는 수술 시에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의 투여량이 외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생제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요구 수준은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한 수요에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그 판단조차도 항생제에 대한 관심부족에 의한 것에서부터 전문가적 확신에 의한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전문가 사이의 정보교환이 활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예방적 항생제의 진료가이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국내의 열악한 수술환경에 대한 고려, 법적 보호 장치의 선행적 확립 등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임상에는 다양한 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직되고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호의 '정책과 쟁점'에서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이우용 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 조용균 인제대 상계백병원 산부인과 교수, 홍유선 영동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교수, 송주현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교수, 그리고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금)에는 이 주제를 다루는 '심평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토론자로 참석한 김민자 고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 양병국 보건복지가족부 보험평가과장, 조운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의 토론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근거중심의 진료가이드 개발에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HIRA연구'에서는 '일차의료서비스이용의 지속성 측정 지표' 연구를 요약하였습니다. 보건의료를 평가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속성이며, 일차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료이용의 지속성에 대한 개념과 측정지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슈브리핑'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종합전문요양기관 관리 및 평가규정 공포'와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방지 대책'을 다루었습니다.

'해외동향'에는 미국의 수술 감염관리의 질평가 현황을 고찰한 글과 미국 요통의 질향상 활동의 평가 지표와 경제적 효과, 호주 빅토리아 주의 손상시스템을 소개한 글을 실었습니다.

'진료경향분석'에서는 의료기관의 약품비 증가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2002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건강보험 청구자료 중 의료기관의 외래 및 입원 진료내역과 처방전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원내·원외 약품비, 의료기관 입원·외래 일당 약품비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HIRA정책동향'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기대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장

정형선